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태국

### Kingdom of Thailand

2022년 3월 7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513천 km <sup>2</sup> 	<b>인구</b> 6,995만 명 (2021 <sup>e</sup> ) 	<b>정치체제</b>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중립 
<b>GDP</b> 5,462.2억 달러 (2021 <sup>e</sup> ) 	<b>1인당GDP</b> 7,808.66달러 (2021 <sup>e</sup> ) 	<b>통화단위</b> Baht(Bt) 	<b>환율(U\$기준)</b> 31.98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21년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며 제도적 집권 연장에 성공하였으나, 군부 집권에 유리한 개헌, 왕실에 대한 불만 등의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주요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중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인인도조약('01),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04), 수형자이송조약('12), 사법공조조약('15)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7,804,095	6,852,684	8,525,656	전자·전기 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수입	5,317,602	5,196,533	7,007,365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9월 말 누계,총투자기준)** 1,238건, 2,991백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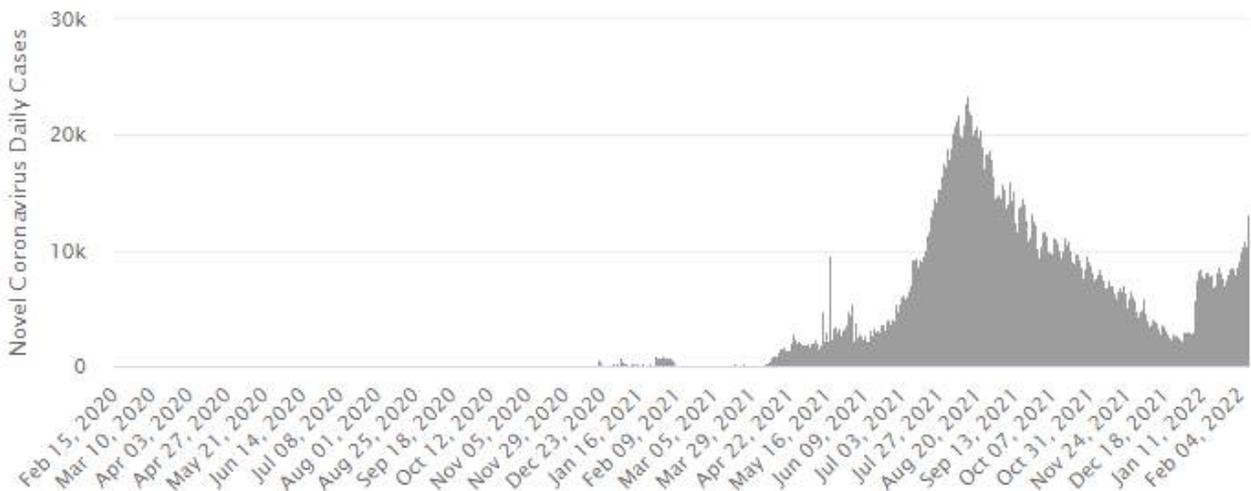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제성장률	4.2	4.2	2.3	-6.1	1.0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1	0.7	-0.8	0.9
재정수지/GDP	-0.4	0.1	-0.8	-4.7	-6.9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

- 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대외거래 호조 등에 힘입어 2017~18년 4%대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들어 수출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2.3%의 부진한 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봉쇄령에 따른 관광객 입국 중단, 산업생산과 소비심리 등 경제활동 전반이 극도로 침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6.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의 본격적인 재개 등에 힘입어 1.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는 2021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22년 태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및 투자·수출 부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벗어나 약 3.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반정부 시위 지속으로 정치·사회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경제활동 불안 요소도 상존함.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면세 인센티브 제공, 거주 외국인 앞 장기간 거주 허가 비자 발급 등을 시행 중임.

[그림 1] 태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자료: Worldometers

## 국내경제

### 2021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 기록

- 태국 중앙은행(BOT)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2020년 중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세 차례에 걸쳐 75bp 인하하여 역대 최저치인 0.5%까지 낮춘 이후 2021년 중 계속 유지하였으며, 2022년 2월 열린 금융정책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 등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특별소비세 완화를 검토 중임.

[그림 2] 태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태국 중앙은행/Trading Economics

###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매년 GDP의 -1~1%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수 감소에 더해 원천징수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기 등의 감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경기 부양 및 방역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2020년 GDP 대비 -4.7%, 2021년에는 GDP 대비 -6.9%의 적자를 기록함.
- 태국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는 2022회계연도에서 정부 투자예산을 전년 대비 900억 바트(한화 약 3조 원)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연간 투자예산이 재정적자보다 많아야 한다는 정부 예산 계획 원칙(2018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투자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43,952	28,423	38,044	20,279	-11,911
경상수지/GDP	9.6	5.6	7.0	4.1	-2.2
상 품 수 지	32,581	22,388	26,725	40,856	30,151
상 품 수 출	233,688	251,108	242,701	226,984	291,810
상 품 수 입	201,107	228,720	215,976	186,128	261,659
외 환 보 유 액	194,048	197,031	214,573	246,034	224,804
총 외 채	157,583	172,498	180,230	198,330	203,430
총외채잔액/GDP	34.5	34.1	33.1	39.5	37.3
D.S.R.	5.7	6.1	6.7	8.6	6.6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기록

- 태국의 상품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 및 수출하는 가공 무역과 쌀, 타피오카, 설탕 등 식품류 중심의 1차상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둔화되었던 민간소비가 전세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면서 상품수출 및 상품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29% 및 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증가세를 보인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트럭,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전자기기, 컴퓨터 등임. 태국 정부는 최근 바트화 약세로 태국산 백미(도정된 쌀)의 톤당 가격이 베트남산 백미보다 저렴함에 따라 2022년 태국의 쌀 수출량이 2021년 대비 약 25% 늘어난 7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기준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상품수입이 전체 상품수입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자동차부품과 연료 등인 원자재 및 중간재가 57.7%, 자본재가 21.5%를 각각 차지함.
-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태국은 2019년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243억 달러 규모의 양호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84% 감소한 연간 평균 640만 명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임시 의료인력 2,40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임.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이 풍부하고 외채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

- 2021년 말 기준 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2,248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7.6개월분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6%로 추정되어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단기외채잔액 감소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추이(%) : 35.4('17) → 32.2('18) → 27.9('19) → 26.2('20) → 28.6('21)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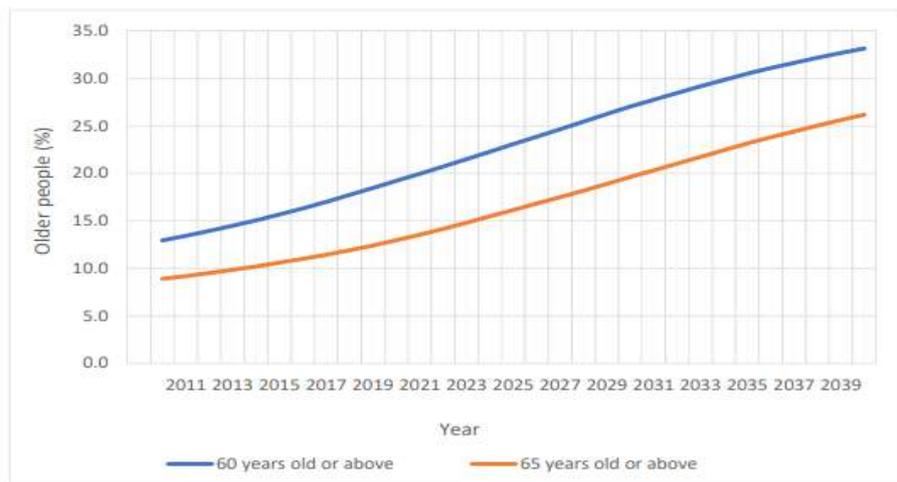
### 관광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관광업은 2019년 기준 태국 총수출의 약 18% 및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관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음.
- 2019년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약 811.7억 달러 규모를 지출한 데 반해, 2020년 및 2021년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연간 평균 약 320억 달러에 불과하여, 그 차이는 2021년 GDP의 약 9%에 달함.
- 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및 관광업 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무격리 입국(Test & Go)을 재개하고, 기존 샌드박스 프로그램<sup>1)</sup> 적용 지역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2022년 말까지 태국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인구 고령화와 주변국 대비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조기지로서 경쟁력 약화

- 태국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등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3,878만 명이었던 태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40년 약 3,650만 명을 기록할 것이며,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20%에서 2040년에는 3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 3] 태국 총인구 대비 노년층 비중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9)

-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은 식당 등 서비스 분야, 건설 현장 등 저숙련·서비스 업종에 주로 고용되고 있으며, 최근 태국 정부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2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이주노동 허용을 검토 중임.

1)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 관광객의 격리 면제 프로그램으로, 현재 푸켓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역에 적용 중임.

## 구조적취약성

- 2013년 171~221바트 수준이던 일일 최저임금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총선 공약 이행에 따라 300바트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2022년 2월 현재 331바트(약 12,280원)임.
- 태국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 출신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얀마의 일일 최저임금은 약 3,240원으로, 주변국 대비 태국의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
-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은 민간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요인이 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은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 성장잠재력

###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기업환경과 양호한 인프라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군부의 집권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조세 시스템 등 주변국 대비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12월 8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Ford)는 태국 내 공장 현대화를 위해 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태국 정부는 2022년 5,000억 바트(한화 약 18.5조원)의 투자 유치를 위해 면세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고수익형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난항

- 태국에서는 학위 취득에 대한 선호가 높아 중산층 이상에서는 대학원 졸업 수준의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및 교육 수준 차이가 커서 농촌을 포함 시 평균적인 교육의 질이 미흡함. 이에 따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부문인 정보통신, 과학,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는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등 교육 수준과 일자리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 저임금 노동력을 요하는 산업의 경우 미얀마, 캄보디아 등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인접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음.
- 한편, 태국은 보편적인 고등교육 체계의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할 고수익형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 정책성과

###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추진

-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5월 이를 발족하였음. 동 계획은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13,285km<sup>2</sup>의 동부 해안 지역(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을 태국 무역과 물류의 핵심이 되는 최첨단 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동 지역이 동아시아, ASEAN, 인도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차세대 아시아 관문이 될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발표하였음.
- EEC 개발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태국 정부는 1차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태국 정부는 법인세 면제 기간 및 토지 임대 기간 확대, 민관 합작 투자사업(PPP)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등 EEC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표 1]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기 간	1차 : 2017~21년, 2차 : 2022~26년
총 예산규모	1차 :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2차 : 2.2조 바트(약 667억 달러)
목 적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주요 내용	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 3개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
승인 프로젝트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규제 완화	- PPP(민관 합작 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 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 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을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 타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 정책성과

[그림 4]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대상지역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Graphic © Asia Briefing Ltd.

### 가계부채 증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 태국의 경제 연구소인 Kasikorn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4분기 말 84.9%였으나, 2021년 1분기 말에는 전분기보다 5.6%p 증가하여 GDP의 90.5%에 달하는 14조 1,300억 바트(한화 약 494조 원)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태국 정부는 학생대출 펀드와 학자금 대출 감면, 중도상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채무 청산 등 직·간접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 추진

- 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민간소비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태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였음.
- (민간) 코로나19 피해 개인 앞 1인당 7,000바트(한화 약 25만 원) 지급, 생필품 구매 시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음.
- (기업)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 시행, 태국 수출입은행의 원금상환 12개월 유예 조건이 포함된 중소기업 수출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하여 운영함.

## 정치안정

### 2014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현재까지 권력 장악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NCPO)를 발족한 뒤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뿌랏 쩌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제하였음.
- 군부는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였고, 동 헌법은 2017년 4월 발효되었음.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도 총리가 될 수 있으며,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하원 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되 상원의원은 전원 NCPO가 임명한다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통한 군부의 합법적 집권이 가능토록 하였음.
- 2019년 3월 하원의원 선거 결과 군부가 창당한 팔랑프라차랏당이 116석을 확보하였으며, 민주계인 푸어타이당은 137석, 선진미래당은 80석을 차지하였음. 팔랑프라차랏당은 선거로 획득한 하원 116석에 일부 군소 정당 소속 의원을 포섭하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프랏 쩌오차 총리를 재선출하는 데 성공하여 군부의 집권이 제도적으로 연장되었음.
- 군부는 헌법에 의해 상원의원 의석 250석(상하원 총의석의 33.3%에 해당)을 보장받음에 따라 정권 교체 및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 제도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군부의 지속적인 재집권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9월 국회의 불신임 투표 결과 군부의 총리직 유지 성공

- 2021년 9월 4일 태국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실패와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뿌랏 쩌오차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면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됨.
- 투표는 총 482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475명이 참석하였으며, 기권 3명을 제외하고 264명이 뿌랏 쩌오차 총리를 신임했고, 208명이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음.
- 뿌랏 쩌오차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수천 명의 방콕 시민들이 총리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2021년 들어 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였음.

## 사회안정

### 정부와 왕실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 지속

- 2020년 2월부터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개헌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2021년 9월 2일 빠라웃 총리 내각 사퇴 요구 시위, 그리고 2021년 10월 31일 태국 형법 112조에 포함된 왕실 모독죄의 폐지 요구 시위는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2021년 들어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꼽힘.
- 태국 형법 제112조(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 및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1년 1월 19일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고위공직자 여성은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형법 제112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선고된 역대 최고 형량을 선고받음. 왕실 모독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소된 각각의 혐의들을 묶어 복수 기소되어 중형 선고가 가능했음.
- 시위대는 태국 정부가 시위대를 압박하는 구실로 왕실 모독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왕실 모독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한 110위 기록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태국은 35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년 전 104위보다 6단계 하락한 결과로, 베트남보다도 낮고 필리핀보다는 높은 순위임.
- ※ ASEAN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48점, 62위), 베트남(39점, 87위), 인도네시아(38점, 96위), 필리핀(33점, 117위), 캄보디아(23점, 157위) 등

## 국제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또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켰으며,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 조정을 통한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 추진

-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중임.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를 기 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과 다자간 FTA를 기 체결하였음. 2020년 11월에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2021년 6월, 태국 정부는 2014년 이후 중단됐던 EU와의 양자 간 FTA 논의를 시작함. EU는 2020년 기준 태국의 무역액에서 5위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태국은 EU에 주로 자동차, 오토바이, 컴퓨터, 에어컨, 고무 등을 수출하고 EU로부터 기계 장비,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FTA가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EU뿐만 아니라 ASEAN-캐나다 FTA의 추진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태국에 대한 금융지원액은 74억 달러(단기 46.5억 달러, 중장기 27.5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6백만 달러(연체율 0.02%)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1.06)	3등급(2020.06)
Moody's	Baa1(2021.08)	Baa1(2020.04)
Fitch	BBB+(2022.02)	BBB+(2021.12)

### OECD, 주요 국제신용평가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위 지속으로 인한 사회 불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외채상환능력과 재정 건전성 등 경제적 강점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자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연간 4천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외거래, 소비심리, 관광객 방문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6.1%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산업 생산의 본격적인 재개 등에 힘입어 1.0%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2019년 총선을 통해 제도적인 집권 유지에 성공하였음. 그러나 군부 집권에 유리한 개헌과 왕실에 대한 불만 등이 민주화 시위로 표출되어 현재까지 소요가 지속되고 있는 등 사회 불안이 높은 상황임.
-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어 주변국 대비 관련 제도와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자 및 다자 간 FTA를 다수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거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